

초등학교 국어 교실 현장의 다문화 교육 방향

최영환*

<차 례>

- I. 서론
- II. 다문화 교육의 이중 목표
- III.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의 대상 유형
- IV.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의 중점
- V. 다문화 교육을 위한 다층적 교재 구성
- VI. 결론

I. 서론

최근 몇 년간 다문화¹⁾ 가정의 급증하고,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 대한 교육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문화 교육이 한국 교육계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시점에서 교육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각급 교육관청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choi@ginue.ac.kr

1)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는 대개 문화적인 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적이 다른 경우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적 상황에서, ‘다문화’는 곧 국적이 다르면 문화도 다르다는 인식 포괄하는 의미역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학습자’,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모두 포괄하는 ‘다문화 교육’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계는 다문화 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율성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다문화 가정의 학생 이외에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라는 일반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시키는 것에 한정된, 매우 소극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를 좀더 깊고, 넓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 및 대상, 다문화 교육의 내용 및 교재 구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재 다문화 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국어 교실에서 다문화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야 하는지 지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II. 다문화 교육의 이중 목표

최근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더욱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학생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교육 주체로서의 우리 교육의 기본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 대상자로서 학생들의 입장이다.

교육 주체로서 우리는 다양한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 소수인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국민 보통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 중 가장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

학생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교재를 제작하고, 교수학습을 진행한다. 그런데,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우리 교육의 보편적 특성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있다. 본인 또는 부모 중 하나 이상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 이외의 가정의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과 소양을 갖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교육적 보편성에 기반을 두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위한 교육은 한편으로는 영재교육이나 장애아교육과 같은 특수교육의 맥락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대개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적 처리는 교육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때가 많다. 이러한 배려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과거 우리 사회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다. 더욱이 과거 다문화 가정의 구성을 보면 부모 중 한 사람이 우리나라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교육적 처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고, 그러한 가정의 학생들이 우리 교육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십 수 년에 걸쳐 급속하게 늘어난 다문화 가정은 대개 부모 중 한쪽 또는 부모 모두가 우리나라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뒤쳐진 나라에서 온 경우가 많았고, 이들 가정의 자녀들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교육적 처리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교육은 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가정 문화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대다수의 학생들 역시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다중의 목표를 안게 된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목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단순히 한국 사회와 교육에 적응시키기 위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다문화 교육 정책이 일반적으로 주류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다문화 교육을 참고한 우리나라의 다문화 교육 역시 이러한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적응시키기 위해 다문화 학생이 가진 다른 문화, 즉 한국 문화 이외의 문화를 도구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한국 문화 이외의 문화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문화 학생이 가진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가진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다문화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문화만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의 문화적 능력을 100이라고 한다면,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의 능력은 200이 될 수 있다. 다문화 학생은 단일 문화 학생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를 조건을 갖고 있다. 다문화 학생은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초등교육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교육적 약자로 보이지만, 미래에서는 단일 문화 학생이 도달하기 어려운 교육적 강자가 될 조건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위한 교육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단일 문화 가정 학생, 즉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학생의 입장이다. 종래 우리는 전자에 중점을 두고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물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우리 교육의 체제 안에 빠르게 안착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문화 가정 학생이 아닌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도 다문화 교육²⁾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인식 변화만으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은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어가기 때문이다.

2)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위한 교육과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통칭하여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겠다.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할 때 다문화 학생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게 되면, 단일 문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을 위해 교재의 내용을 다문화 학생과 관련된 문화로 바꾼다거나, 다문화 학생을 위해 국어과 교육의 수준을 낮출 경우, 단일 문화 학생은 문화적으로 역차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다문화 학생의 입장에서만 논의할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앞에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중 다문화 경험과 지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단일 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도 이와 동일한 형태가 된다. 즉 단일 문화 학생이 다문화 학생을 배려하고 교육적 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일 문화 학생이 다문화 학생을 통해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더 넓고 깊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가 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다문화 교육의 이중 목표

목표 \ 대상	다문화 학생을 위한 목표	단일 문화 학생을 위한 목표
기본 목표	한국 사회와 교육에 적응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이해와 지원
확대 목표	다문화 경험과 지식의 극대화	다문화 경험과 지식의 공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기본 목표는 단일 문화 학생을 위한 기본 목표에 대응하고,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목표는 단일 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 목표에 연결된다. 〈표 1〉의 기본 목표는 기존의 다문화 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였다면, 향후 다문화 교육은 확대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 물론 확대 목표는 기본 목표를 거쳐서 도달 가능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목표와 두 대상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다문화 교육을 논의할 때 비로소 다문화 교육은 균형을 찾을 수 있다.

Ⅲ.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의 대상 유형³⁾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최근 몇 년 간의 일이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을 다룰 때 우리는 몇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란 결혼 이민자 자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도 주로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이나 중국 등지에서 결혼 이민을 온 여성에게서 태어난 학생을 의미한다.⁴⁾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오래 전의 일이나 이들로 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우리나라 공식 교육의 장에 들어오게 된 몇 년 전 부터이다. 이들의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에서 결혼 이민자의 자녀가 증가하면서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필요에 대한 인식이 생긴 이후이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했다. 그동안 다문화 가정 자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학교 교육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에 이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된 이유는 다문화 가정이 급격하게 늘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교사들의 교육적 조치를 위한 지원 요청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사실 다문화 가정 자녀 또는 학생을 규정할 때 우리는 몇 가지 유형을

3) 다문화 가정의 학생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다문화 교육의 대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다문화 가정 학생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하의 모든 논의는 일반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국어과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길 수 있기 때문이다.

4) 다문화에 관한 많은 연구물에서 ‘다문화’와 ‘결혼이주여성’ 및 그들의 자녀를 거의 동일 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런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다문화에 대한 논의에서 유럽이나 미주, 또는 일본 등의 국적을 가진 부모를 둔 학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국적에 의한 구분이다. 다문화 가정의 국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ㄱ. 다문화 가정의 국적⁵⁾

ㄱ-1. 한국 국적

ㄱ-2. 외국 국적

ㄱ-3. 다국적

여기서 우선 중요하게 고려한 대상은 ㄱ-3의 다국적 가정이다. 부모가 서로 다른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그 자녀들이 두 개 이상의 문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국적 가정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연구는 주로 이들 다국적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다국적 가정에는 부모와 자녀의 국적이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최근 연구가 증가하는 것은 ㄱ-2의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가 한국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입국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이들의 자녀가 한국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왔다.

둘째, 다문화 가정의 발생 요인에 의한 구분이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고, 외국에 일시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경우도 매우 많기 때문에 단순히 국적만 갖고 다문화 교육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외 동포 귀국 가정 및 한국 국적으로 해외 일시 거주 후 귀국한 가정 역시 다문화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5) 국적에 의한 구분은 매우 간편한 방법이다. 현재 한국은 국적이 곧 문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적과 무관한 문화적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국 국적은 한민족이 아닌 사람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재외 동포는 외국 국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한민족인 사람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다루는 국적은 부모의 국적이며, 본인의 국적은 논외로 한다. 학생의 국적보다는 부모의 국적 또는 문화가 중요한 교육적 고려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상을 교육의 장에서 맞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들 다문화 가정을 규정하는 방법은 매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교육적 관점에서는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이 경험하는 다문화의 특성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문화 논의의 방식 중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가능한 형태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ㄴ. 다문화 가정의 발생 요인

- ㄴ-1. 학생의 가족 구성에 기인한 다문화
- ㄴ-2. 학생의 거주 이전에 기인한 다문화⁶⁾

학생의 가족 구성에 기인한 다문화 가정이란 중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한 경우를 말한다.⁷⁾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가족 구성원은 부모이다. 부모 중 한 명이 문화적, 국가적 배경이 다를 경우 학생은 다문화 환경에 노출된다.

학생의 거주 이전에 기인한 다문화는 한국 이외의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곳에서 태어나거나 성장하다가 한국에 입국하여 두 개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경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직면하는 다문화 경험이다. 과거 다문화 교육과 관련하여 ㄴ-1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였으나, ㄴ-2 역시 중요한 대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ㄴ-2에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교육이나 근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여 다문화 환경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된다.

셋째, 한국어 사용 능력에 의한 구분이다. 초등학교 국어과 시간에 다

6) 거주 이전에 의한 다문화는 외국 거주 후 한국 거주 형태를 일반적으로 다루지만, 한국 거주 후 외국에 거주하다가 다시 한국에 거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서는 이러한 구분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다.

7) 부모 이외에 조부모나 형제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이 가진 문화적 특성에 의한 것은 부모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 개인의 거주 이전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다만, 향후 이런 경우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은 기억해 두어야 한다.

문화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한국어 사용 능력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기를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국어과 시간을 포함하여 모든 교과 시간에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한국어 사용 능력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하기로 한다.⁸⁾

ㄷ.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참여 능력⁹⁾

- ㄷ-1. 교수학습 참여 가능
- ㄷ-2. 교수학습 참여 부분 가능
- ㄷ-3. 교수학습 참여 불가능

위의 조건 중 ㄷ-1. 교수학습 참여 가능 학생은 국어과 교수학습은 물론이고, 다른 교과와 교수학습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이유는 없으며, 국어과 교육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국어과 교수학습을 진행하면서 학습자의 배경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여 가르칠 것인지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만 남는다. 그러나 ㄷ-2와 같이 교수학습 참여가 부분적으로 가능한 학생들은 한국

8)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과 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지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 연구가 그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현재 이런 판단을 내릴 기준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교수학습 참여 정도가 기준이 된다는 일 반론을 펼치고, 향후 이에 대한 판정 척도를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9)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나눌 수도 있다.

- ㄷ' -1. 한국어 모어 & 한국어 교수학습 가능
- ㄷ' -2. 한국어 모어 & 한국어 교수학습 부분 가능
- ㄷ' -3. 한국어 모어 & 한국어 교수학습 불가
- ㄷ'' -1. 외국어 모어 & 한국어 교수학습 가능
- ㄷ'' -2. 외국어 모어 & 한국어 교수학습 부분 가능
- ㄷ'' -3. 외국어 모어 & 한국어 교수학습 불가
- ㄷ''' -1. 한국어*외국어 모어 & 한국어 교수학습 가능
- ㄷ''' -2. 한국어*외국어 모어 & 한국어 교수학습 부분 가능
- ㄷ''' -3. 한국어*외국어 모어 & 한국어 교수학습 불가

이러한 분류를 통해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결정할 때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다.

어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야 참여 가능한 교과를 제외한 일부 교과의 교수학습에는 참여하게 된다.¹⁰⁾ 이와는 달리 ㄷ-3처럼 교수학습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모든 교과에 참여하지 못하고 별도의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¹¹⁾ 현실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가졌는지 판단할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적 결정을 내릴 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한국 거주자의 지속성 여부에 의한 구분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ㄴ. 한국 거주자의 지속성

ㄴ-1. 영주

ㄴ-2. 장기 체류

ㄴ-3. 일시 체류¹²⁾

한국에 거주하되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한국어 능력은 다문화 학생의 향후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도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 학생을

10) 필자는 한국어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야 참여할 수 있는 교과로 윤리, 사회, 역사 등의 교과를 고려한다. 한국어 능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교과는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 능력에 의해 다문화 학생이 참여할 교과를 결정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는다. 이 연구가 국어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 필자는 교수학습에 전혀 참여하지 못할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판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교과와 경우에는 한국어 사용의 중요성이 낮아서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교수학습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런 분류를 하는 까닭은 ㄷ-3에 해당하는 학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2) 장기 체류와 일시 체류를 나누는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1~2년 정도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일시 체류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기간이 3년 이상이 될 경우 한국어 능력의 수준을 높여야 할 뿐 아니라 초등학교 교육 전반에 편입시켜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상위 학교급에 진학하는 경우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객관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편의에 의한 것일 뿐이다.

위한 교육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한다. ㄱ-2 처럼 장기 체류의 경우에도 영주와 동등한 수준에서 교육적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ㄱ-3 처럼 일시 체류를 목적으로 할 경우, 초등학교 국어교과에서는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다른 교과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서 교육 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할 때, 다문화 교육 대상자를 분류하는 방식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표 2〉 다문화 교육 대상의 분류를 위한 범주

범주 유형	ㄱ. 부모의 국적	ㄴ. 발생 요인	ㄷ. 한국어 교수학습 능력 참여 능력	ㄹ. 한국 거주 지속성
	ㄱ-1. 한국 국적 ㄱ-2. 외국 국적 ㄱ-3. 다국적	ㄴ-1. 가족 구성에 기인 ㄴ-2. 거주 이전에 기인	ㄷ-1. 참여 가능 ㄷ-2. 참여 부분 가능 ㄷ-3. 참여 불가능	ㄹ-1. 영주 ㄹ-2. 장기 체류 ㄹ-3. 일시 체류

〈표 2〉에 의하면 네 개의 범주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이 유형을 서로 조합하게 되면, 다문화 교육 대상자를 54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54개 유형 모두를 고려하여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각 범주별 논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국어과 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¹³⁾

13) 다문화 학생의 유형을 54개로 나눌 수 있다고 제시한 이유는, 현재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별로 대상을 미리 전제하고 논의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교류 및 활용이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필자는 54개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범주 및 하위 유형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면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연구 결과를 적용하여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과에서 이 유형 중 필요한 것에 집중하여 논의한다.

IV.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의 중점

1. 한국어 교육의 방향

현재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교육할 때 중요한 점은 한국의 공교육에 적응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을 논의할 때 주로 ‘문화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즉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를 경험한 학생들에게 그들 문화가 가진 특성을 이해시키고, 그들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대조하는 교육 내용을 통해 한국 교육 및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배경에는 교육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이란 단순히 이런 문화적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교과가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 다문화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으나, 국어과에서 다문화 교육이란 다문화 학생이 가진 문화적 측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국어과도 초등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초등교육이 지향하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어과의 중핵이 될 수는 없다. 윤리, 사회, 역사를 비롯한 다문화 내용을 다룰 교과는 국어과 이외에도 많으며, 그런 내용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교과의 설정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어과가 가진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문화 교육에서는 국어과의 특수성¹⁴⁾보다는 보편성에 중점을 두는 현상이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국어과에서 다문화 학생을 가르칠 때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다른 교과에서는 담당할 수 없는 국어과만의 독자적인 영역이어야 한다. 한국의 공교육에는 국어과 이외의 여러 교과가 있으므로 교과별로 다

14) 국어과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의는 최현섭 외(1996)를 참조할 것.

문화 학생을 교육하는 목표나 내용이 다를 것이다. 다만 국어과는 초등학교 교과 학습의 도구가 되는 언어를 가르치는 교과로서 다문화 학생이 공교육에 적응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교과이다. 따라서 위의 범주 Ⅱ은 다문화 학생을 교육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한국어로 진행하는 교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을 갖춘 다문화 학생은 별도의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른 교과의 교수학습은 물론이고 국어과 교수학습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로 진행하는 교수학습에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한국어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국어과에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타 교과 교수학습을 위한 기본 도구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

둘째, 국어과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일.

타 교과 학습을 위한 기본 도구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다문화 학생이나 한국어로 진행하는 교수학습에 참여하여 어려움 없이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과거 국어과 교육이 다문화 교육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던 시절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서,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급증한 현재에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초등학교 다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는 국가 수준에서 마련하지 못하였고, 최근 개발된 교재들은 아직 현장에 보급되지 않아서 교육청이나 개별 학교 또는 교사 개인이 다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국어과의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안내할 수 있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교육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에서 만든 결혼 이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몇몇 교육청에서 만든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다문화 연구 기관에서 제작한 한국어 교재 등에서 이런 혼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다

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이나 교재 개발의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자들이 한국어 교재를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만들 때 다문화 학생의 문화를 반영한 교재를 제작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은 내용의 친숙함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접근법이기는 하지만, 문화가 곧 한국어 능력을 제공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다문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 문화 이외에 자신이 가진 문화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한국어 능력이기 때문이다.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 교재로 다문화 학생을 가르칠 경우 한국어 능력보다는 문화 이해 능력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을 기대하는 만큼 길러주기 어렵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내용 측면, 한국어가 담는 내용

첫째, 학교 생활을 위한 한국어

둘째, 일상 생활을 위한 한국어

형식 측면, 한국어의 형식

한국어가 담는 내용은 현재 외국어 교수학습 이론에 따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교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초등학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학교생활을 위한 한국어와 일상생활을 위한 한국어를 구별하여 배워야 한다. 학교생활을 위한 한국어는 한국어 교육을 통해 빠른 시간 안에 다른 교과목의 교수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고, 일상생활을 위한 한국어는 공식적인 교수학습 이외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 둘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상 혼란이 있었다.

이것과 함께,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의 형식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한국어의 형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교육적 위계

를 설정하여 교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에서 제작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문화 내용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의 형식을 포괄하지 못하는 교재가 대부분이며, 한국어 형식을 중심으로 제작한 교재는 문화 내용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이 둘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두 가지를 통합하기 어렵다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를 학습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재와 한국어 형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교재를 별도로 만들어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어과 교재의 재구성 방향

국어과 교수학습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은 한국어 교육과는 다르다. 한국어 교육이 전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에 집중한다면, 국어과 교육은 다문화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가 중심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어과 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다문화 요소를 포괄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포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된다.

국어과 교수학습은 교재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재는 사실 국어과 교육에서 다룰 내용을 담은 그릇으로 다문화 교육을 위한 논의에서도 중요한 논의 기반을 제공한다. 국어과 교재는 크게 네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최영환, 2003 : 233).

- ① 목표 : 학습자가 학습할,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
- ② 내용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전략
- ③ 언어자료 : 전략을 학습하기 위한 도구, 제재
- ④ 방법 : 자료를 활용하여 성과를 거두기 위한 행동

위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국어과 교재를 구성하고 교수학습을

진행할 경우, 다문화 교육을 위해 교재를 재구성할 때 다문화 관련 내용을 네 가지 요소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국어과 교재 재구성 방안으로 크게 추가·생략·재조직·대치의 네 가지가 있다(최현섭 외, 2007 : 117). 이 두 가지 범주를 교직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국어과 교재 구성 방안을 설정하게 된다.¹⁵⁾

〈표 3〉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국어과 교재 구성 방안

교재 구성 요소 재조직 방법	목표	내용	언어 자료	방법
추가	○	○	◎	△
생략	×	×	×	△
재조직	○	○	◎	△
대치	×	○	◎	△

◎ 가능 / ○ 부분적으로 가능 / × 불가 / △ 유보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재를 구성하는 요소를 재조직할 때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우선 목표를 살펴보면, 국어과 교재의 목표가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일치할 경우 그 목표를 그냥 둘 수 있으며,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추가해도 원래 목표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경우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말의 소중함을 안다.”는 목표의 경우 다문화 교육에서 다른 언어의 소중함을 아는 것까지 함께 다룰 수 있다. 재조직은 국어과 목표 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가르칠 목표의 순서를 바꾸거나 목표를 분할하거나 통합하는 경우이므로 이것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국어과 교재의 목표를 다른 것으로 대치하거나 생략할 수는 없다. 다문화 교육이 국어과 교육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⁶⁾

15) 〈표 3〉은 다문화 교육만을 위한 형태는 아니다. 국어과 교재의 재구성에서 〈표 3〉은 일반적인 지침이 된다. 필자는 사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국어과 교육이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다문화 교육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여기 표시된 가능성 여부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일 뿐 일반적인 교재 재구성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16) 목표의 생략이나 대치는 한국어 교육의 장에서는 가능하다. 다른 요소들도 동일한 가

국어과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¹⁷⁾ 목표를 달성할 방법이 우리 문화 이외의 다른 문화에 있을 때 그것을 추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얼굴 묘사를 할 때 우리 고전의 얼굴 묘사법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서양식의 객관적 묘사법을 다루는 것도 가능하다.¹⁸⁾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 교재에 제시된 방법을 대신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재조직 역시 가능하다. 다만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어과에서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재 재구성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언어 자료이다. 현재 국어과 교재에 수록한 언어 자료는 모두 국어로 되어 있지만, 다른 문화에서 생산한 것이 적지 않다. 문학 작품이 그렇고, 설명문도 그렇고, 전기문 역시 그렇다. 즉 국어과 교재에서 언어 자료는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대치 또는 재조직할 수 있다. 다만, 삭제는 불가하다. 언어 자료가 없는 국어과 교수학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어과 교재에 담는 교수학습 방법은 문화적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유보할 수밖에 없다.

V. 다문화 교육을 위한 다층적 교재 구성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는 단일한 교재보다는 다원적, 다층적 교재가 필요하다. 다문화 교육 대상이 갖고 있는 국적, 다문화 가정의 발생 요인, 한국어 능력 및 한국 거주 의 지속성 등에 따른 특성은 단일 교재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능성을 갖고 있다.

- 17)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필자는 국어과 교육을 국어 사용 능력이라는 관점, 흔히 말하는 기능적 입장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이런 논란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하지는 않는다.
- 18) 물론 객관적 묘사가 과연 서양식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역사적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1.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실의 난점

한국어 교육이나 국어과 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을 할 경우 직면하는 문제들 때문에 교재 구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화적 배경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현재 주로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지를 문화적 배경으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배경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문화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다문화 교육을 한다고 해도, 그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문화권 출신 학생은 다문화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 교실에 둘 이상의 다문화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도 문제이다. 한 교실에서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를 함께 다루는 것도 쉽지 않은데, 두 개 이상의 다른 문화를 가진 학생이 참여할 경우 한국 문화를 포함하여 셋 이상의 문화가 한 교실에 공존하기 때문에 국어과 학습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사용 수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나 국어과 교육에서 담당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의 교재가 필요하고,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에서는 6개 학년에 걸쳐 6개 영역, 둘 또는 세 권의 교재에 다문화 교육을 포괄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를 위한 교재를 구성하고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에 거주 목적이 영주를 목적으로 할 경우와 일시 체류를 할 경우 한국어 교육의 도달점과 국어과 교육의 도달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의 설계가 쉽지 않다.

2. 다층적 교재 재구성의 필요성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교실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교재를 재구성할 때 다층적, 다원적 설계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오는 다문화 학생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주요 국가들을 선정하여 교재를 구성하여 제공하지만, 모든 문화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문화 교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모든 문화권별 다문화 교재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형태의 교재가 필요하다.

첫째, 문화 공통 교재

둘째, 문화 특수 교재

문화 공통 교재는 문화권별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의 초등학교에서 다른 문화를 포괄하여 교육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 즉 문화적 차이보다는 문화 교육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둔 일반적인 요소를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즉 한국 문화와 다른 문화를 비교 대조하는 과정, 한국어와 다른 언어를 비교 대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을 다루면 된다. 여기에는 위에서 다룬 교재 재구성 방안이 적용될 것이다. 이것은 구성의 용이성을 제공하면서 문화 특수 교재를 구성할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시 말하면, 문화 공통 교재는 교재라기보다는 우선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재 재구성의 틀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위한 안내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재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문화별 교재를 구성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화 공통 교재는 현재와 같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재로서 목표, 내용, 언어 자료, 방법의 면에서 추가, 생략, 재조직, 대치를 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문화 공통 교재가 단순히 틀을 제시하거나 예시 자료만 제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교재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교육청 이상 단위에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 특수 교재는 문화 공통 교재를 기초로 하여 사용 언어 및 문화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강조한 교재이다. 모든 문화권을 고려한 교재를 만

들 수 없고, 문화권별 교재를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화 공통 교재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형태가 된다. 즉 문화 공통 교재를 예시 자료로 활용하면서 목표, 내용, 언어 자료, 방법 등을 재구성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교재를 재구성할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학교급별, 교실별로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VI. 결론

초등학교는 교과가 분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교과를 교사 한 사람이 가르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초등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경우 문화라는 것이 모든 영역, 모든 교과에 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은 다문화 교재를 개발하거나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현장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교과가 힘을 합쳐 다문화 교육을 하는 것과 교과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 교육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교과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다문화를 포괄 수용하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교과의 특성을 잊고 다문화 교육에 예측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다문화 교육을 하나의 복합체로 보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분리하고, 각 기준별로 필요한 교육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교육은 우선 교육 목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단일 문화 가정 학생을 모두 고려하면서 한국 사회와 교육에 적응하게 하는 기본 목표를 출발점으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확대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다문화 교육 대상은 크게 국적, 다문화 발생 요인, 한국어 교수학습 능력, 한국 거주 의 지속성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각 범주별로 하위

유형을 설정하여 이것을 조합하면 매우 다양한 다문화 학생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문화 교육 대상을 매우 단순화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문화 교육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범주별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국어과에서는 한국어로 교수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및 국어과 교육을 중심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국어과에서 다루는 다문화 교육은 한국어 교육과 국어과 교육으로 나뉜다.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 학생이 한국어로 교수학습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은 교육 내용을 학교생활과 일상생활로 나누어 답아야 하며, 한국어 언어 형식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도 포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어과 교육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재 재구성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다. 국어과 교육의 목표, 내용, 언어 자료를 중심으로 추가, 재조직, 대체 등의 방법을 통해 교재는 재구성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재는 단일한 교재일 수 없다. 문화가 매우 다양하고 국적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재로 모든 국적과 문화를 포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공통 교재를 만들어 모든 국적이나 문화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이를 예시 자료이면서 주요 대상 문화권 학생을 위한 교육 자료로 삼는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 자료를 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가나 교육청에서는 문화 공통 교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학교나 교실별로는 이를 토대로 하여 문화 특수 교재를 보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등학교 국어 교실에서 다문화 교육은 일반 국어과 교육과 마찬가지로 목표, 대상, 교육 내용, 교재 구성 등의 전 영역에 걸쳐 상세한 연구가 필요로 한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석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9. 2. 28. 투고되었으며, 2009. 3. 3. 심사가 시작되어 2009. 3.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권순희(2006),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언어 교육 정책 모색-호주의 언어 교육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 연구 제27집, 국어교육학회.
- 권오현(1998), “다문화 시대를 위한 상호문화적 행동능력 중심 외국어교육 모델 개발”, 2006년 교과교육공동연구 결과보고서.
- 민병곤(2008), “학교 교육에서의 언어와 다문화”, 다문화 교육의 이해를 위한 교양 교재 저술, 교육인적자원부.
- 박갑수(2006),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성찰,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영민·최숙기(2007), “다문화 시대의 국어 교과서 단원 개발을 위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학회.
- 박영순(2006), “이주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안”, 이중언어학회 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이중언어학회.
- 서 혁(2007ㄱ), “다문화 가정 현황 및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인간연구 12, 가톨릭대학교 인간연구소.
- 서 혁(2007ㄴ), “열린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다문화시대의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 2007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연구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 설동훈(2006), “이주민 한국어교육을 둘러싸고 선결해야 할 조건”, 국내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어세계화재단.
- 원진숙(2007), “세계화와 국어교육 ; 다문화 시대 국어교육의 역할”, 국어교육학연구 제30집, 국어교육학회.
- 원진숙(2008), “다문화 시대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32집, 국어교육학회.
- 윤희원(2006), “한국어교수법 연구의 전제와 방법”, 국어교육연구 제18집, 서울대학교.
- 이혜영(2006), “다문화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회 25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이중언어학회.
- 조수진(2002),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교육 제5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지도자과정.
- 조수진·윤희원(2008),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 다문화 시대의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이중언어학회.
- 최영환(2001), “국어과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자료개발 연구”, 교과교육학연구 제5권 특집호, 한국교과교육학회.

최영환(2003), 국어교육학의 지향, 삼지원.

최정순(2008), “다문화 시대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제언”, 다문화 시대의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이중언어학회.

최현섭 외(2007), 국어교육학 개론, 삼지원.

<초록>

초등학교 국어 교실 현장의 다문화 교육 방향

최영환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다문화 가정 학생과 단일 문화 가정 학생을 모두 고려하면서, 한국 사회와 교육에 적응하게 하는 기본 목표를 출발점으로,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확대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

다문화 교육 대상은 크게 국적, 다문화 발생 요인, 한국어 교수학습 능력, 한국어 거주의 지속성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각 범주별로 하위 유형을 설정하여 이것을 조합하면 매우 다양한 다문화 학생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특히 국어과에서는 한국어로 교수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므로 이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및 국어과 교육을 중심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국어과에서 다루는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 학생이 한국어로 교수학습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은 교육 내용을 학교생활과 일상생활로 나누어 답아야 하며, 한국어 언어 형식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도 포괄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재는 문화 공통 교재를 만들어 모든 국적이거나 문화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 자료를 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핵심어】 다문화, 다문화 교육, 국어 교육, 한국어, 교재

<Abstract>

A Direc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Choi, Yeong-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students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Firstly, we have to analyze the go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students goal	Multicultural students	Monocultural students
Basic goal	an Adaption to Korean Society and Education	an Apprehension and Support to multicultural students
Expanded goal	The maximization multicultural knowledge and experience	The Share of multicultural knowledge and experience

Secondly, we can categorize multicultural students into 54 types.

category	a. Nationality of Parents	b. Formative factors	c. Korean speaking ability	d. Residence
parts	a-1. Korean a-2. foreigner a-3. multinational parents	b-1. family members b-2. immigration	c-1. proficiency c-2. novice c-3. disability	d-1. residence d-2. long stay d-3. temporal stay

Thirdly, the teaching materials are reconstructed by 4 factors.

material factors process	goals	contents	language data	methods
addition	○	○	◎	△
omission	×	×	×	△
reorganization	○	○	◎	△
replacement	×	○	◎	△

◎ possible / ○ partly possible/ × impossible / △ hold back

【Key words】 multicultural, korean language, materials

【토론문】

“초등학교 국어 교실 현장의 다문화 교육 방향”에 관한 토론문

원진숙(서울교대)

최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아동들이 급증하면서 이른바 ‘다문화 교육’이 학계와 교육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심지어는 한 학급의 반 수 이상의 학생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으로 이루어진 교실이 드물지 않은 현실에서 다문화 교육의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가장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우리말과 글을 가르침으로써 한국인다운 한국인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국어교육 현장에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코드로 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당장 국어교육계 안에서 그 방향성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논의된 최영환 교수님의 <초등학교 국어 교실 현장의 다문화 교육 방향>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초등학교 국어 교실 현장에서 지향해야 할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을 교육의 목표와 대상, 내용 및 교재 구성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변화된 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어교육계의 반응’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공격을 위한 날 선 토론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학문적 담론 공동체에 속한 동업자로서 암증모색하고 있는 사고의 편린 차원에서 드리는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목표에 관한 부분입니다. 연구자는 초등학교 국어 교실 현장의

다문화 교육 목표를 소수자인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적응이 아닌 그들의 문화 자체를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단일 문화 학생이 다문화 학생을 통해 다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수준에 이르게 하는 이원적인 것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소위 다문화주의의 관점과도 상통하면서 원론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견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어교육 교실 안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어교육의 목표 차원에서 과연 이러한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이원적 목표가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습니다. ‘언어’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국어 교과와 특수성 측면에서 과연 연구자가 제안하는 이 이원적 목표가 국어 교육 목표 차원에서, 국어 교실 차원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다문화 교육의 대상 유형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구자께서는 부모의 국적, 발생 요인, 한국어 교수 학습 참여 능력, 한국 거주 지속성 등의 주요 범주를 중심으로 한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다문화 교육 대상자를 무려 54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을 설파하고 각 범주별 논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국어과 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범주를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문화 교육 대상을 무려 54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논의를 매우 신선하게 접했습니다만 결국에 남은 생각은 다문화 교육의 문제는 이렇게 잘 짜여진 논리 연산 체제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이었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결국 언어와 문화의 문제이고, 매우 절박한 조건 속에 내던져진 실존적 인간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정연한 로직으로 접근할 수도, 접근해서도 안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은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교육 대상자를 분류한 다음, 한 교실에서 이러한 다양성의 변인을 고려하면서 국어과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연구자는 국어과에서 다문화 교육이란 문화적 접근이 아닌 한국어 사용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문화 자체를 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일견 상처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국어과에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할 때 타 교과 교수 학습을 위한 기본 도구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과 국어과 교수 학습을 진행하는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엄밀하게 본다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 단계를 두어 KSL과 같은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어 소통 능력을 신장시켜 주거나 아예 이중언어교육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견해와 연계되는 것이라 보여지는 데 이에 대한 연구자의 견해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넷째, 연구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를 기존의 교재를 추가, 생략, 재조직, 대치의 네 가지 방식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문화 공통 교재와 문화 특수 교재를 병행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재 개발 방향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국어 교과서의 목표는 아무래도 한국어 소통 능력과 범교과적인 학습 능력, 다문화적 문식력 등을 함께 추구하는 다층적 차원에 두어야 할 것 같기도 하려니와 문화에 초점을 두는 교과서는 아무래도 국어 교과보다는 사회 교과의 성격에 더 가까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